

2023년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16시 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제3차 공무국외출장(말레이시아-싱가포르) 결과 보고 1
2. 제4차 공무국외출장(말레이시아) 타당성 심사-의결안 3

(16시 04분 개회)

○의정팀장 이종대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종대 인사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 소개가 있겠으며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받으신 후 안건 상정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4차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등 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위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차례로 김지영, 이형덕, 현충열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상 오늘 바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정애숙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마지막으로 박성복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것으로 참석하신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복 추운데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여러 분이 가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심의하는 게 예산 편성 들고 온 것도 보니까 전부 협의회에서 가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그렇게 크게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사님이 설명을 하시면 들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적 위원 7인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4회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3차 공무국외출장(말레이시아-싱가포르) 결과 보고

○위원장 박성복 먼저 제3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국외출

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 외출장은 해외 성공 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평생학습 분야 사업에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 기관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인회와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을 방문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는 패밀리 센트럴과 싱가포르 교육부 교육기술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기관을 방문하여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교류와 통합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회원들의 다양한 역할을 활용하여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확산하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인회에 대한 국내 기업과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동반된다면 말레이시아를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한인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의 유일한 협동조합 교육 기관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훈련과 연구를 맡고 있었으며 국내 협동조합의 교육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37개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 관계자와 공무에 대한 기술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작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협력과 경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더욱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제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큰 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업종을 찾고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접경 지역인 이스칸다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한 지역개발청으로 제9차 말레이시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20년간 5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기업의 투자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과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인근 첨단산업 단지와의 연계한 주거·문화·경제·교육·체육·녹지가 어우러지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미래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 부족한 교육 기반을 3기 신도시에 구축하고 선진화된 교육 기관을 유치하여 광명에 들어서는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과 산업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의 패밀리 센트럴입니다. 2011년에 설립되어 가족 중심의 평생 교육 업무를 맡고 있으며 시니어들이 적극적인 노후 활동, 평생학습, 세대 간 유대감 증진 같은 활동을 통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더욱 멀어지는 시대에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함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간 교육 프로그램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세대 간 교육은 결국 세대 간 소통 강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교육이 노인인 청소년이나 청년에

게 삶의 지혜나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청소년은 핸드폰, 무인 단말기, 노트북, 유튜브, 드론과 같은 최신 기술을 노인에게 가르치는 쌍방향 교육으로 간다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 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학생들을 시험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객관적 성과 지표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본 교육 과정과 학생 개인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각자가 전 분야에 걸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게 하여 단순한 지식과 내용 전달이 아닌 품성을 더 강조하는 전인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보고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숙 위원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나라인가요?

○김미화 위원 잘살죠.

○정애숙 위원 훨씬?

○김미화 위원 훨씬 잘살죠.

○의정팀장 이종대 비쌌습니다. 저는 안 갔지만,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능 성적 상위 1% 학생들이 의대를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1%가 어디를 가냐 하면 공무원을

한답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딱딱해야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화교들이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정애숙 위원 아, 머리 좋은 애들이 공무원을 한다고요.

○의정팀장 이종대 네, 공무원을 한답니다. 월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신 각 상위 클래스의 이 사람들이 사회를 다 유지해주는 거죠. 규제가 많고, 호텔 이런 데 식당이 장난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한 두 배 넘는 것 같아요, 비용이. 조그마한 도시가 왜 이렇게 비싼지.

○정애숙 위원 그래서 적게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기를 슬로건으로 한다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의정팀장 이종대 네, 의원님들 이번에 가셨는데 말레이시아는 대우도 좋고 기관을 방문해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사진 보시면 막 나와서 뭐 쓰고... 그런데 싱가포르는 약간 거만해요. 자기가 잘사는 나라야.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기도 벌써 다릅니다.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정애숙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말레이시아는 한인회들이 열심히 사람을 모은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한인회가 그렇게 별로 없었나 보네요?

○의정팀장 이종대 그런데 섭외가, 섭외하기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레이시아 한인회도 우리 의장님 단에서 가요, 쉽지 않아요. 이분들도 선별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2. 제4차 공무국외출장(말레이시아) 타당성 심사의결안

○위원장 박성복 더 의문 사항 없으시면 이어서 제4차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

성 심사의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공무국의출장에 대한 타당성 심사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공무국의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의결받기 위해서입니다.

3페이지 공무국의출장 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의출장은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상생 발전 모델과 관광 발전상과 의회 협력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연수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출장 동기 및 배경으로 말레이시아 수도권 도시 방문을 통한 교류 협력 강화, 공공 부문과 도시 행정 및 인프라 서비스의 스마트화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 진행 사항 확인,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범정부의 상호 협력과 노력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탐방하기 위해 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우리 시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의장님과 8명의 직원, 총 14명이 공무국의출장 방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출장 기간은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3박 5일입니다. 광명시의회에서는 안성환 의장님과 협의회 간사인 저와 협의회 실무자인 이재연 그리고 수행 비서 유길상, 4명이 연수에 참가합니다. 방문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며 방문 지역은 쿠알라룸푸르, 프탈링자야, 푸트라자야, 겐팅입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안성환 의장과 직원들입니다. 수행 공무원은 광명시의회 공무국의출장 규칙에 본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같음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부 일정 중 주요 방문 기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일 차에 프탈링자야 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의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역점적인 추진 정책과 시의회 예산 확보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의응답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한인회를 방문하여 한인회의 일반적인 현황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애로 사항 및 모국의 지원 현황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일 차, 말레이시아 관광청을 방문하여 관광청의 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광청의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질의응답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을 방문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의 시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 경제, 일자리 활성화 관리 기능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질의응답할 계획입니다. 한편 힌두교 성지인 바투동굴 현장을 문화 탐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KL 시티 갤러리와 푸트라자야 관공서 밀집 지역에서 총리 공관, 중앙은행, 국립 모스크 등을 현장 탐방 하고 끝으로 겐팅 지역의 하이랜드, 버자야 힐 프랑스마을을 현장 탐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 비용 부담 및 산출 내역입니다. 안성환 의장님의 공무국의출장 경비 271만 원은 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 전액 부담하며 공무원 경비 211만 700원은 의회사무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공무국의출장 심사 요청서 및 심사 기준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은 중부권 7개 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의회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여러 분야의 지원

전략 연구 모델의 확인을 통해 보다 나은 경기도 중부권 도시 발전의 정책 개발을 위해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숙 위원 일정 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문제가 되고 말 나올 장소들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도시관리청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의정팀장 이종대 도시관리청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애숙 위원 뭐 수도권 과밀화 해서,

○의정팀장 이종대 우리 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도시계획과가 될 거예요.

○정애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 같은 거.

○의정팀장 이종대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겁니다.

○정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복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미화 위원 올해 9월에도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는데 이게 연계돼서 더 색다르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별도로 더 있나요? 한 번 갔다 오셨으니까 보다 더 연계돼서 뭔가... 그때는 시의회만 가고.

○의정팀장 이종대 시의회만 간 건 아니고, 시의회에서 상임위가 자치행정교육위 있잖아요. 그 주안점이 뭐였냐 하면 교육하고 평생 그런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들은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도시관

리청도 가 보고 이쪽저쪽 다 가 보는 겁니다, 의장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분야였으면 저희가 집었죠. 그걸로 가야죠. 다른 데로 가면 사실은 의미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복 사실은 오늘 이 회의가 의장단협의회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여할 만한 게,

○의정팀장 이종대 그렇죠, 만약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었으면 문제가 저기 되겠지만 의장님들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복 경비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터치할 게 아니고 직원 것만 들어가는데 직원이야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니까 별로 크게... 안 같잖아. 간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심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복 없으시면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 안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복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의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서 서명)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성복	정애숙	김영훈
김미화	이형덕	현충열

○간 사

의	정	팀	장	이종대
---	---	---	---	-----

○서명인

위	원	장	박성복
---	---	---	-----